

아파트 시대의 지속과 도시조직의 거대화

Continuous Apartment Supply as Giant Cellgranuloma of Urban Fabric

여전히 아파트 광풍 시대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인천의 청라지구와 송도 일대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찾는 사람들의 줄이 백 미터를 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기대와 걱정이 교차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설핏 가슴을 채우는 기대란 건축설계 일거리가 당분간은 여전히 많 것이라는 안도감이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우려가 나머지 가슴 한 구석을 멍하게 만든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그리곤 묻게 된다. 우리의 일상공간이 여전히 아파트여야 하는가, 그리고 형틀에 넣어 주조 하듯 아파트를 찍어내는 공급방식이 과연 다음 세대의 우리들을 위해 바람직한 일인가를.

그런데 이런 기대와 우려를 누르고 또 다른 걱정이 슬쩍 머리를 든다. 아파트가 보편적인 도시주택으로 자리 하면서 점점 거대화되는 도시조직의 문제이다. 이는 도시건축의 위기이자 설계 산업 구조와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필지의 단위가 점점 커지는 도시는 활기찬 도시가 가져야 할 충분조건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아니, 턱없이 모자란다. 왜냐면 도시다움을 스스로 상실하게 하는 첩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럽의 많은 역사도시를 찾아 카메라의 렌즈를 들이댈 때면 갖게 되는 품격과 고즈넉함에 대한 생각들은 다시 우리가 딛고 선 이 땅으로 돌아오면 잊혀지는 망각의 편리함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와 그네들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스스로의 적극적 예단 때문일까. 적어도 도시는 은밀한 켄가 곳곳에 존재해야 하며, 이는 기억과 흔적으로 남아 전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필지 규모의 거대화를 통한 대단위 아파트 만들기는 분명 새로운 성찰의 대상으로 상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다. 필지규모의 거대화를 생산의 효율이라는 이유를 들어 합리화한다면 적어도 다양한 설계집단이 상생하는 우리들의 소망과는 딴 방향으로 상황을 몰아가는 것이 분명할 것이다. 이는 결국 거대화를 추구하는 단지 생산 방식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질문으로서 나아가면서 우리 시대에 더 없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변하고 만다. 2008년을 기준으로 할 때 주거건축에 대한 설계 계약 건수가 연간 4건 이하인 사무소의 비율이 전체 설계사무소의 73%에 달한다는 통계는 설계 산업과 도시건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수치로 증명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잘 들어맞는다고 하지만 누구에게도 잘 맞지 않는 아파트 건설과 공급을 이유로 도시조직을 거대규모로 만들어가는 작금의 현상은 분명 우리 모두가 고의로 눈을 감았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도시조직의 거대화와 필지의 대형화는 앞으로 벌어질 변화무쌍한 도시상황의 변모에 대한 대응력을 상실하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누리고 존중해야 할 우리들의 개별적 삶의 가치를 하루아침에 몽개버리고 마는 폭력이다. 당장의 달콤함과 어쩔 수 없음에 대한 자기합리화를 펼쳐내고 견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목청 돌음과 계몽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천으로 행동되어야 할 우리 시대의 규범이며, 건축설계의 현장에서 신념으로 밀어나가야 할 덕목이자 건축계 모두가 합의해야 할 오늘의 아젠다이기도 하다. ■



박철수 / Park, Cheol-soo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약력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동대학 대학원 석사 및 박사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
- 대한건축학회, 한국주거학회, 한국 도시설계학회 이사